

국외출장보고서 : 일본 동경

1. 국외출장목적

- 한국 및 일본 정부의 사회 및 복지 정책 세미나
 - － 우리나라 포용성장 및 포용복지에 대한 발제 및 토론
 - － 일본 사회정책 흐름과 향후 방향 발제 및 토론
- 일본 노동·복지·삶의 질 향상이 함께 만들어져가는 공동체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사례 연구

2. 국외 출장 개요

- 출장지역 : 일본 동경
- 출장자 / 출장기간
 - － 조홍식(원장) / 2018.12.05(수)~12.07(금)
 - － 김태완(포용복지단장), 김기태, 정세정(부연구위원) / 2018.12.05(수)~12.08(토)
-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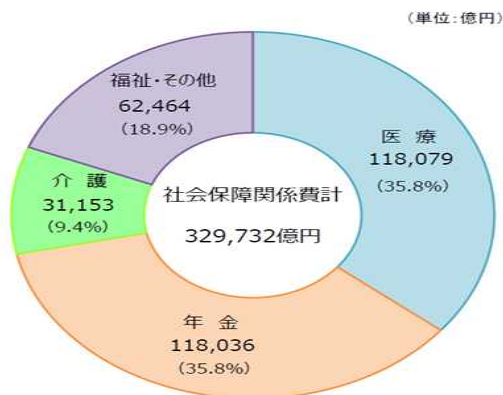
날짜	방문 장소 및 참석자	주요 내용
2018. 12. 5	일본 동경	- 서울 → 동경 이동
2018. 12. 6 (오전)	(재)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isao ENDO소장, Toru SUZUKI 부소장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세미나
2018. 12. 6 (오후)	닛세이 기초연구소 /김명중(주임연구원)	- 일본의 노동시장 정책 흐름과 방향 관련 논의
2018. 12. 7 (오전)	도요시마구	- 동경도 도요시마구 생활공공자립지원센터
2018. 12. 7 (오후)	가와사키시	- 가와사키시 생활자립 및 일자리지원센터 (※조홍식 원장님 오후 동경 출발)
2018. 12. 8	서울 도착	

3. 국외출장 주요 개요

가. 일본 사회보장 동향

□ 일본은 사회보장 예산은 약 330조엔(2018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 977조엔의 33.8% 수준임

○ 예산 중 의료와 연금이 각각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개호(9.4%)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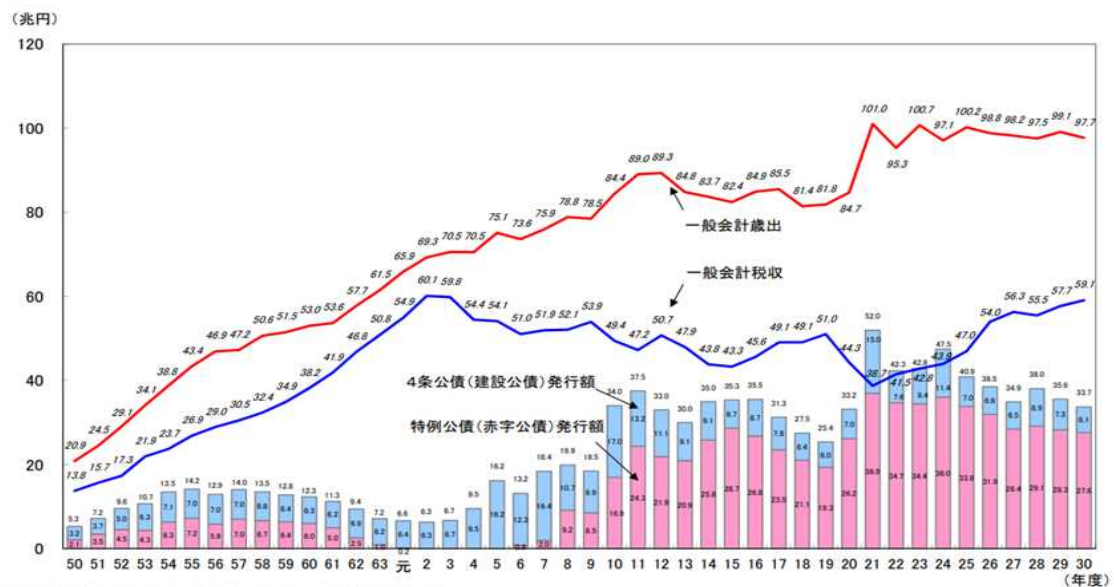


(単位: 億円)

区 分	平成30年度
1. 医療	118,079
(1) 国民健康保険	33,834
(2) 全国健康保険協会管掌健康保険	11,803
(3) 後期高齢者医療給付費負担金等	50,833
(4) 医療扶助費等負担金	14,112
(5) その他	7,497
2. 年金	118,036
(1) 厚生年金	97,991
(2) 国民年金	18,207
(3) 福祉年金	32
(4) その他	1,807
3. 介護	31,153
(1) 給付費負担金等	24,079
(2) 2号保険料国庫負担	3,665
(3) その他	3,408
4. 福祉・その他	62,464
(1) 生活扶助費等負担金	14,177
(2) 児童手当・児童扶養手当	13,690
(3) 障害福祉サービス	15,105
(4) 子どものための教育・保育給付	8,323
(5) 雇用保険	251
(6) その他	10,919
(生活保護費再掲)	(29,027)
合 計	329,732

(注1) 計数については、それぞれ四捨五入によっているので、端数において合計とは合致しないものがある。
(注2) 2.年金(3)福祉年金には福祉年金給付費及び特別障害給付金給付費に係る国庫負担額を記載している。

○ 현재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악어의 입을 불리는 국가 채무 문제임.
최근 국가채무(파란선)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채무가 높은 상황임



(注1) 平成28年度までは決算、平成29年度は補正後予算案、平成30年度は政府案による。

- 일본은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8년 사회보장 관련 예산 증가는 4,997억엔, 1.5% 증가에 그침

(単位: 億円)

項 目	29年度	30年度	29' → 30' 増減
社会保障関係費	324,735	329,732	4,997(+1.5%)
恩給関係費	2,947	2,504	▲443(▲15.0%)

-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 생활보호 제도의 개정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검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가구 소비실태를 반영하여 생활 부조기준을 변경하여 4년 간 180억엔 축소
- 의료부조 적정화를 위해 후발의약품 사용 의무화, 보건사 등이 의료기관에 동행 하는 것 등을 통해 진료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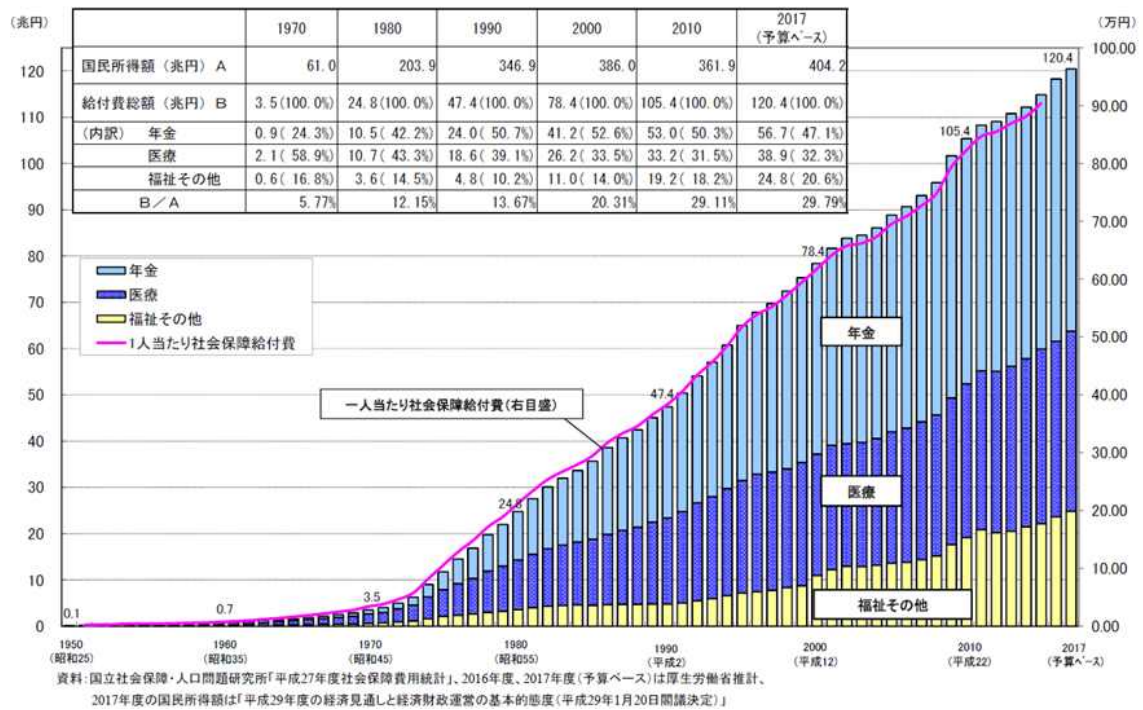
○ 사회보장 비용의 상당부분을 장래세대가 부담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을 추진

- 사회보장 충실 및 안정화, 재정 건전화를 동시 달성하는 것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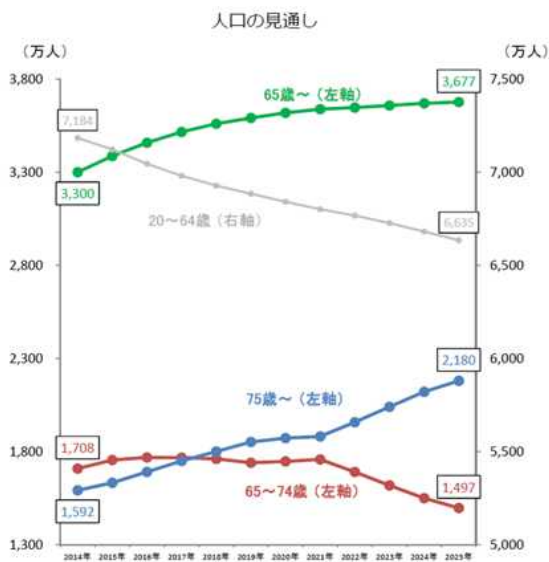


-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비가 급속도로 증가. 1980년대까지는 급부비 인상속도가 빠르지 않았지만,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급부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연금과 의료에 대한 급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및 간호비 문제임



- 고려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65~74세 노인에 비해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 예상. 이로 인해 향후 연금급부액 증가보다 개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
- 2012년 대비 2025년 연금은 1.1배가 높아지는 반면에 개호 및 의료비용은 각각 2.3배, 1.5배로 증가 예상



나. 일본 노동시장 변화

□ 일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시간 노동, 산업 등의 문제가 일본 경제의 생산상 저하로 이어진다는 판단하에 2018년 6월 29일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을 발효

○ 근본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도입과 비정규직 처우, 장시간 노동 문제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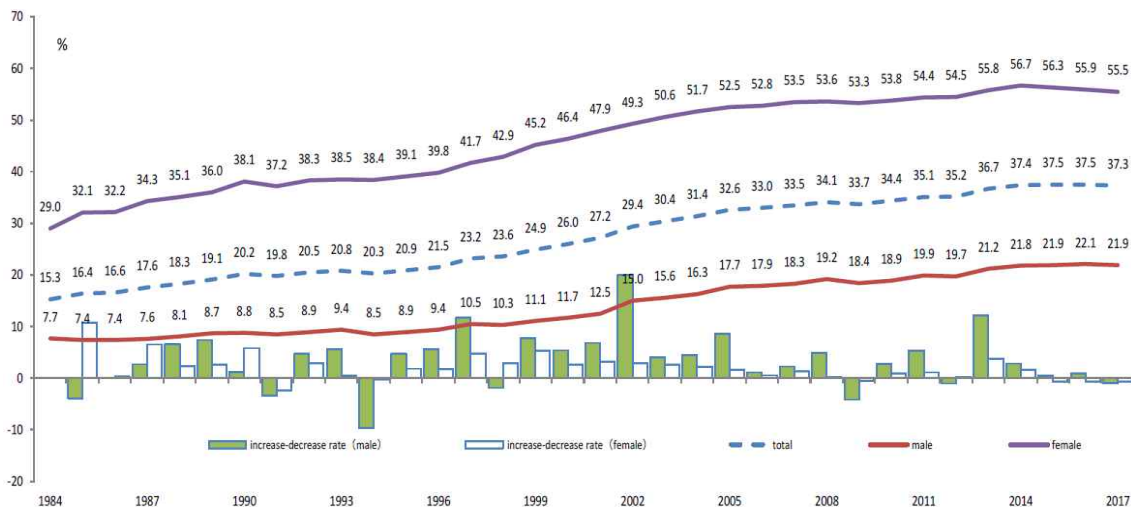
□ 일하는 방식 개혁 이유

○ 인구 및 노동인구의 감소



○ 다양성 추진과 생산성 향상

- 개인의 성별이나 인종, 국적 등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기 위한 경영방식 도입
- 하지만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



○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개선

- 일본 노동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노동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노사관행에 따른 노동시간 자율화를 인정하여 근로시간 연장과 휴일 노동이 가능한 상황
- 일본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노동시간은 아래 그림 파란선인 약 1700시간임. 하지만 동시간은 파트타임 노동자가 포함된 것으로, 최근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착시 현상 발생
- 실제 정규 노동자의 총 근로시간은 2천 시간 이상으로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둬



□ 일하는 방식 개혁법의 주요 내용

○ 노동기준법 개정

- 잔업시간 상한 규제, 월 60시간 이상의 할증임금 유예조치 폐지
- 일정기간 이상의 연차 휴가 사용, 유연근무제 검토 등

○ 노동안정 위생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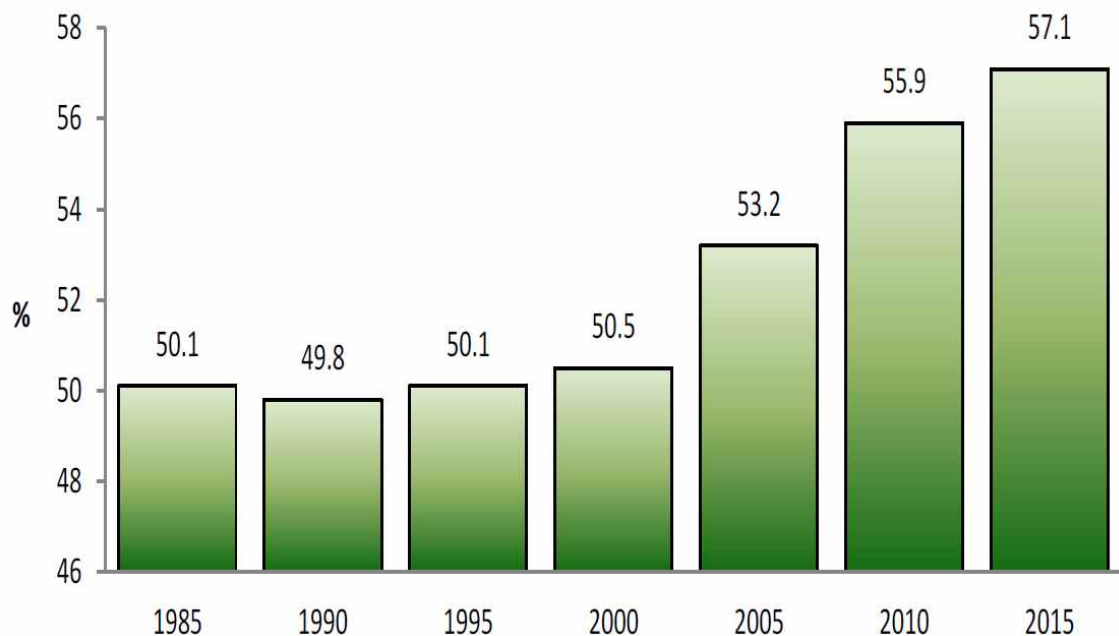
- 면접 지도 강화
- 산업의 보건 기능 강화, 진폐 등 관련 규정 정비 등

○ 노동시간 등 설정 법 개정

- 근무시간 간 인터벌(Interval) 제도의 보급 촉진
- 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위원회 활동 강화

○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공정한 대우 확보

- 잔업시간 상한 규제 : 잔업시간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 단 임시적으로 월간 100 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휴일근로 포함)에서 최장 연 720시간으로 억제
 - 대기업은 2019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시행
- 월 60시간 이상의 할증 임금의 유예조치 폐지
- 일정기간 이상의 연차휴가 보장(2019년 4월 시행)
- 탄력근무제(flex time제도) 검토
- 고급전문제도 : 고수익의 일부 전문직의 경우 시간외 노동 규제에서 제외
- 동일노동 동일임금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 해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0%에도 못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다. 일본 생활곤궁자 지원제도

1) 현황

□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공공부조제도 도입 필요성에 의해 1946년 생활보호법이 제정,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재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 실업률 추이: '90년 2.1% → '13년 4.0% → 18년(8월) 2.4% (한국 4.2%, OECD 평균 5.3%)

○ 즉, 사회보험제도와 생활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발생, 경기 악화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목적 및 시행)** 이에, 1. 생활곤궁자의 자립과 존엄 확보, 2.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15년 4월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이 제정('13.12.31), 시행('15.4.1)됨.

○ 생활곤궁자의 생활보호제도 진입예방과 사회안전망 재구축.

□ **(지원대상)**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자(법 제2조).

○ 생활보호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계층; 비정규직 노동자, 연수입 200만엔 이하, 니트족,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 경제적 곤궁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도 배려하도록 권장.

□ **(주요사업)** 자립상담지원사업, 주택확보급여금 지급 등.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사업명	내용	필수 여부	국고 부담	소관
자립상담지원사업	생활곤궁자에 대한 상담사업	필수	3/4	복지사무소 설치 자치단체
주택확보급여금	이직 등으로 주거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주택확보급여금 지급, 월세 지원 및 대출상담 의뢰.	필수	3/4	복지사무소 설치 자치단체
취업준비지원사업	직장소개, 직업소개	임의	2/3	복지사무소 설치 자치단체

취업훈련사업 사업자 인정	직업훈련	필수	-	도도부현 등의 장
한시생활지원사업	의식주 지원이 가능한 사업소를 알선	임의	2/3	복지사무소 설치 자치단체
가계상담지원사업	필요시 상담지원	임의	1/2	복지사무소 설치 자치단체
학습지원사업	등교거부, 히키코모리 등에게 상담지원	임의	1/2	복지사무소 설치 자치단체

☐ (지원원칙)

- 포괄성과 개별성의 원칙; 초기단계에서부터 포괄적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각 사례에 기반한 개별적 지원을 실시.
- 조기성과 계속성의 원칙; 경제적 빈곤자와 사회적으로 고립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적 자립으로부터 경제적 자립까지 계속적 지원을 제공.
- 분권성, 창조적 지원 원칙; NPO, 사회복지법인, 소비생활협동조합, 민간기업, 자원 봉사자 등 민관협력에 기반한 지원을 제공.

☐ (전달체계) 지자체 복지사무소의 직접실시 + 협의회 등 위탁 수행

- 자립상담지원사업의 약 60%는 지자체 위탁으로 실시되며, 위탁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약 80%를 차지('15년 7월 기준).

☐ 사회서비스 + 현금급여(주거) + 구직지원이 결합된 형태. 단, 현금급여보다는 사회서비스연계에 초점.

2) 동경도 도요시마구 생활곤궁자자립지원센터

☐ 도요시마구의 개요

- 도요시마구의 인구는 289,536명(2018년 7월 시점)으로 매년마다 1만명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밀도는 22,255명/km² 해당하여 전국 1위임.
- 세대수는 2018년 1월 기준, 177,671세대이며, 고령화율은 20.09%.
 - 살기좋은 지역으로 소문이 나면서 생활곤궁자와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추세.

☐ 생활곤궁자자립지원센터 현황

- 2014년 4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전관조직을 설치.
- 2014년 6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모델사업 실시.

- 2014년 9월 도요시마구청내에 「헬로워크」의 부속시설인 「워크스텝 도시마1」를 설치.
- 2015년 법안통과 및 제도시행과 함께 2015년 5월 제도 의도에 맞게 설계된 신청사로 이전.
-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4층에 모든 지원 관련 체계를 조직화하고, 1층과 3층에는 종합안내소를, 4층 에스컬레이터에는 floor manager를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도요시마구 생활곤궁자자립지원 사업 내용 및 성과

○ 사업내용

- － 도요시마구는 필수사업과 임의사업 모두를 수행하고 있음.
 - 생활곤궁자 지원사업은 필수사업과 임의사업으로 구분되며, 필수사업에는 자립상담지원사업(상담지원/ 취로지원), 주거확보급부금 제공이 있음(총 3개).
 - 임의사업에는 취로준비·사회참가 지원사업, 일시생활지원사업, 가게개선 지원사업, 아동의 학습 등 지원, 그 외사업이 있음(총 5개).
 - 기타사업으로는 취로훈련 지원사업이 있음.
- － 사업운영은 사업내용에 따라 센터 내에서 공공과 민간이 분담 및 협업하고 있음 (필요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형태로 운영).
 - 도요시마 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인재 파견회사(휴먼 리소시아 주식회사), 특별비영리 활동법인(인클루전 센터 도쿄 오렌지) 등이 센터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음.
 - 생활곤궁자자립지원사업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도요시마 구청 공무원은 12인임.

<도요시마구 생활곤궁자자립지원센터 사업내용>

1) 생활곤궁자, 생활보호자, 아동부양수당 등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로지원을 하기 위하여 도요시마구와 헬로워크와의 일체적 실시사업으로 2014년 10월 8일부터 도요시마 구청의 청사 내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헬로워크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인정보의 제공, 공공직업훈련의 수강 알선, 지원서류 첨삭, 면접 대응, 직업상담 및 소개 등의 지원을 제공.

구분	사업명	인원	운영사업자	지원 특징
필수사업	자립상담 지원사업 (상담지원)	6명 (중복)	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의한 밀착형 지원 ·상담자의 상황에 따라 아웃리치(가정방문)을 실시, 지역이나 관계단체와의 연계 실시
	자립상담 지원사업 (취로지원)	3명	민간인재 파견회사	·상담자의 조건에 맞는 구인 ·가계상황 파악을 통해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구인을 제공 ·취로개시 후의 환경을 고용주와 조정하는 정착 지원을 실시
	주거확보 급부금	각1명	(신청접수) 사회복지 협의회 (취준관리) 민간인재 파견회사 (심사 및 지급) 도시마구	·각 사업자의 강점을 살려,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상용취직을 위한 지원을 실시
임의사업	취로준비· 사회참가 지원사업	2명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상담자 별 오더메이드(order made) ²⁾ 식의 프로그램을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고령 대상자 및 그 부모를 포함한 가정전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실시(8050문제 ³⁾ 에 대응)
	일시생활지 원사업	도 위탁	자립지원 센터 도시마 숙소 → 상주하는 헬로 워크 직원도 대응할 수 없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민간인재 파견회사의 취로 지원을 실시	
	가계개선 지원사업	2명 (중복)	사회복지 협의회	·가계수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 ·도요시마 구 내의 변호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능력있는 변호사를 네트워크화하여, 초회 무료의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아동의 학습 등 지원	2명 (중복)	사회복지 협의회	·지역의 무료학습 지원단체를 합친 「도요시마 아동 학습지원 네트워크」를 사무국인 사협이 운영
	그외사업	-	도요시마구	·효과적인 강연회 및 세미나를 개최 ⁴⁾
	취로 훈련 지원사업	-	도쿄도 인정사업자	도쿄도가 인정하는 취로훈련 사업소에, 조건에 맞는 취로준비지원 대상자를 연결하고 있음.

○ 성과

- 월 평균 97건의 신규 상담이 이루어지며, 평균 월별 지원플랜 결정수는 35.1건임.
- 상담내용은 수입·생활비(91.0%), 일·취직(75.6%), 주거(55.2%)의 순으로 나타나며, 채무, 가족·인간관계, 직장내 불안·트러블, 식량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연간 25% 정도가 취업에 성공, 75%에 대해서는 지속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도요시마구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특징

- ① 일본의 특성상, 생활보호제도가 주는 낙인감을 피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와 생활곤궁자지원 창구를 명확하게 구분. (생활복지과는 이케부쿠로 역 히가시에키부쿠로 분청사에 위치)

2) 대상자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

3) 50대의 자녀가 80대의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컬으며, 주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가 많음.

4) 2017년의 경우, 「희망의 힘」, 「단샤리교실」, 「아동의 빈곤」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음.

- － ②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4층에 관련부서를 집약 배치하였음.
 - 원스톱 지원을 위하여, 4층에 복지총무과, 삶·일 상담센터, 장애복지과, 고령자 복지과, 개호보험과, 소비생활센터, 행정정보 코너, 구민상담과, 보육과, 육아지원과, 아동과를 설치하였음, 수화통역사 파견센터, 이케부쿠로 보건소 출장 창구 및 카페를 두고 있음.
- － ③ 모든 사업내용(자립상담지원사업, 취로준비지원사업, 가계개선지원사업, 주거 확보급부금, 아동의 학습지원사업)을 센터 내에서 일체적으로 지원.
 - 자립상담지원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인재파견회사
 - 취로준비지원사업: 특정비영리활동법인
 - 가계개선지원사업: 사회복지협의회
 - 주거확보급부금: 구 등
 - 아동의 학습지원사업: 사회복지협의회
 - 워크스텝 도시마: 헬로워크 이케부쿠로의 부속시설
- － ④ 모든 관계자가 모이는 각종 회의의 정기적 실시
 - 상담자의 지원플랜과 관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자가 모이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 주임회의에서는 구를 포함한 센터의 담당자(주임)이 모여 효과적인 일체형 지언 체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과제의 파악과 해결책을 검토함.

<도요시마구 생활곤궁자자립지원센터의 각종 회의>

회의체	개최빈도	참가자	목적
지원조정회의	월2회 + 수시	· 도시마구 복지총무과 · 본 센터 수탁 사업자 · 헬로 워크 이케부쿠로 · 자립지원센터 도시마 숙소 · 청내 관계과 · 관계사업자	상담자의 지원플랜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자가 모여 의견교환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
주임회의 (업무보고 검토회의)	주 1회	· 도시마구 복지총무과 · 본 센터 수탁 사업자	사업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센터 과제를 공유하고 개별사례의 진행상황 등을 검토
취로미팅	주 1회	· 헬로 워크 이케부쿠로 · 도시마 구민 사회복지협의회 · 취로준비 수탁사업자	워크스텝 도시마에 연계하고 있는 상담자를 중심으로 지원방침 및 진행상황의 확인을 진행
개별미팅	수시	· 본 센터 수탁 사업자 · 청내 관계과 · 관계 사업자	긴급성이 높은 상담자가 발생할 경우, 정보공유, 지원방침,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진행

□ 기타

○ 지역보건복지계획(2018-2023년)과 관련하여,

- 기존 조직에서 대응이 어려웠던 제도의 사각지대 과제나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상담자 등에 대하여 각 관계과, 관계기관에 의한 팀접근을 코디네이트하기 위하여 복지종합층에 「상담지원포괄화추진원」을 배치함.
- 상담지원포괄화추진원은 단독의 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복합적인 과제에 대하여 각 관계과나 관계기관과 연계를 도모하며, 필요에 따라 사례 검토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과제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조정을 진행함.
- 즉, 도요시마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지원사례

○ 20대 남성 니트청년의 사례

- 통신제 고등학교 진학에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을 계기로 5년간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지냄.
- 이 후, 할머니 댁에서 거주하며 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하였으나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뿐 취직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현재 무직상태이며, 어머니로부터 월 35,000엔 정도의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음.
- 어머니는 어떻게든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음.
- 사정: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병식부재.
 - 피부염에 대한 병원 치료의 필요성.
- 개입:
 - 자립상담지원
 - 취로준비지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심하고 실패할 수 있는 곳을 선정, 병원동행 및 영양지도
 - 가게개선지원: 엑셀 활용 가게표를 매월 작성하고, 필요한 수입수준을 검토.

－ 개입결과

-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병식을 개선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과의 교류가 증가하였고, 의사소통 능력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됨.
- 직업훈련과 도요시마구 챌린지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도쿄 도 공무원으로 일하게 됨.
- 긍정적인 개입결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가족 내 위치를 확립한 것으로 파악됨.

－ 총 개입 횟수

- 지원횟수: 97회, 관계기관 협의횟수: 39회

3) 가와사키시 생활자립 및 일자리지원센터

□ **(지역적 특성 및 배경)** 가와사키시는 동경의 남쪽에 인접한 가나가와현의 북동쪽에 위치. 인구 149만명. 생활보호자 비율이 2.11%로 일본 평균을 웃도는 수준. 공업지역이 밀집한 남동부 지역에는 특히 노동자 출신의 빈곤 노인이 다수 거주. 시의 일반 회계예산 7300엔 가운데 600엔이 생활보호 관련 예산. 시로서는 생활곤궁자 지원을 통해서 빈곤 인구의 증가를 막을 필요.

□ **(센터의 현황)**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에 근거,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지원을 위해 2013년 12월에 ‘다이쇼부센터’라 불리는 생활자립 및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가와사키시의 경우, 특히 구직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는 유형.

○ 월평균 신규 상담자의 수가 100명 내외이며, 지난 2017년 한해 신규 상담자의 수는 1322명. 연령대별로는 40대 (21%), 50대 (19%) 등이며, 60세 이상 상담자의 비율이 36%로 노인 비율이 3분의 1을 넘음. 상담 내용을 보면, 2017년 전체 3952건 상담 가운데 취업 (851건), 생활비 (791건), 집세 (455건) 등이 다수를 차지. 센터에는 18명의 인력이 상주. 전문 분야별로 정신보건 (2명), 취업(5명), 주거 및 가계 (2명) 등 분야별로 상담을 담당.

○ 다음 세가자 조건 충족해야 센터의 서비스 대상이 됨. 가와사키시 내에 거주하는 자,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 상대적으로 제도의 대상을 느슨하게 해서, 빈곤인구로 유입가능성인 높은, 이른바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집단이나 취업 포기 집단도 포괄하려고 시도.

- 월평균 신규 상담자의 수가 100명 내외이며, 지난 2017년 한해 신규 상담자의 수는 1322명. 연령대별로는 40대 (21%), 50대 (19%) 등이며, 60세 이상 상담자의 비율이 36%로 노인 비율이 3분의 1을 넘음. 상담 내용을 보면, 2017년 전체 3952건 상담 가운데 취업 (851건), 생활비 (791건), 집세 (455건) 등이 다수를 차지

□ (센터 지원의 특징) 상담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

- 취로, 정신보건, 가계 및 거주 등의 범주에 따라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지는 상담원이 면담뿐 아니라, 행정기관, 병원으로 동행. 필요한 경우, 행정 창구에서 수속 보조 및 채용 면접 시 동석하는 등 밀착형 지원
- 상담자의 특성에 맞춰 다음과 같은 네가지 취업지원 사업을 전개. 첫째, 일 응원 사업 (노동할 의사가 있지만 채용되기 어려운 자, 이를테면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가정의 부모 등을 위해 생활곤궁자 취로 지원 사업 유형), 둘째, 직장견학 및 구인 개척 사업 (노동의욕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대상. 구인 회사를 함께 방문, 채용 면접 등에 동행, 출근 첫날 동행) 셋째, 취로준비 지원 사업 (장기간 일자리를 못잡아 구직을 단념한 인구 가운데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유형, 서비스 대상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더 단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넷째, ‘복지취로’의 활용 (장애나 정신질환 때문에 일반적인 취업이 어려운 인구 대상, 장애인 종합지원법 등의 제도를 통한 취업 지원)

□ (센터 지원의 성과 및 한계)

- 2017년 센터가 지원한 대상자 289명 가운데 취업자 수는 233명으로 취직률은 81%. 취직한 대상자들은 센터에서 3개월 동안 취업 상황 점검. 이들 가운데 3개월 뒤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약 75%. 센터가 밝히는 지표를 보면, 성과가 있어 보임.
- 센터의 상담직원 1인당 약 30~40 사례를 담당. 센터가 밝히는 수준의 실효성이 있는 상담 및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 또, 가와사키시 생활보호자립지원실 카코 케이타로 계장이 밝히는 대로, 생활보호제도와의 매끄러운 연계가 과제로 남음. 마지막으로, 히키코모리와 같이, 근로의욕 자체를 잃은 젊은 인구가 다수 있고, 시장에는 이들을 찾는 일자리가 상당히 있다는,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본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